

# '7천선 안착' 코스피, 이번주 '8천피' 찍나

### 지난주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8일 미국 뉴욕증시 동반상승 마감 韓증시 투자심리 수치 큰 폭 상승

지난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초강세에 힘입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10일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899.13포인트 (13.63%) 오른 7,498.00으로 장을 마쳤다.

노동절(5일) 연휴에서 돌아온 코스피는 지난주 첫날부터 5% 넘게 급등하며 7,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전주 후반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가 일제히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관련주가 강한 탄력을 받은 상황이 국내 증시에 한꺼번에 반영되며 시장을 밀어 올렸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각각 5.44%와 12.52% 급등했다.

이후 어린이날(5일) 하루 휴장한 코스피는 6일에도 강세를 지속, 처음으로 7천선을 넘어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무려 14.41%와 10.64%씩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4일과 6일 2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

원 이상을 폭풍 순매수한 외국인인 이후 '팔자'로 전환,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12조3천억원을 순매도했다.

그런데도 코스피는 속도가 느려졌을 뿐 상승을 멈추지 않았다.

8일의 경우 장 초반 한때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매수 기회로 인식,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결과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지난주 4거래일 내내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신고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4-8일간의 유가증권시장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인 홀로 5조9천736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4조5천981억원과 1조8천663억원 매수 우위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외에는 별다른 약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외국인 순매도는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이일현 성격이 크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런 가운데 8일 미국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상승하며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02% 오르는 데 그쳤으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0.84%와 1.71%씩 뛰며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1% 급등했다.

미 노동부가 내놓은 4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11만5천명 증가로 시장전망치(+6만7천명)를 웃돌았고, 애플의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언론 보도에 인텔(+13.93%)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기술주가 강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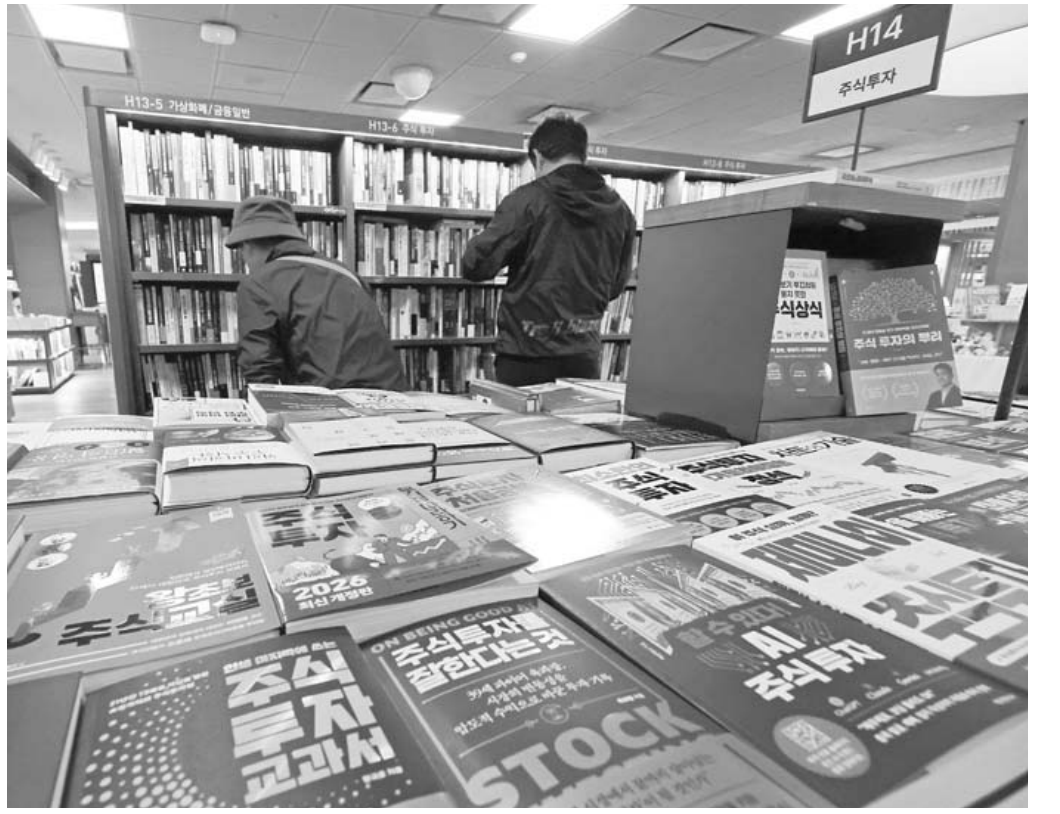
반면 같은 날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48.2로, 1952년 집계 시작 이래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내 체감경기는 큰 폭으로 악화했고, 미국과 이란 간에 산발적 교전이 이어지자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전장보다 1.23% 오른 배럴당 101.29달러로 집계되는 등 국제유가도 상승했다.

한국 증시 투자심리 관련 수치들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증시 상장지수펀드(ETF)는 7.61% 급등했고, MSCI 신홍지수 ETF도 2.03%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금주 코스피는 초반부터 강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밖에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 파업도 주목할 이벤트로 거론된다. 사측과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생산차질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에도 상당한 변동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불장에 주식 도서 판매량 '경풍'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000선을 넘어선 주시각의 기대감이 서점가로도 번지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 주식·재테크 코너에서 시민들이 도서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9일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1월1일-5월6일) 국내 주식 관련 도서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5% 급증했다. /연합뉴스

## '제2 명륜당' 막는다...가맹본부 정책자금 악용 차단

### 금융위·공정위, 가맹점 고금리 대출 대응 정책대출 제한·대부업 쪼개기 등록 규제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 정책자금을 써서 빌려서는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가맹본부의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저리로 국책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 사태' 유사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주)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저리로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총당 등 목적의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금융위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도도 나타났다.

(주)명륜당은 명륜당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계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을 취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인 (주)A사는 매월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면, 가맹점주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 원리금으로 대부업체에 각각 상환했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겸업하는 (주)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이용했다. (주)B사는 대표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 쪼개기 등록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취급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 1223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6 18 20 32 33 39 /보너스 26		
1등	1,857,554,133	6개 숫자 일치
2등	48,092,017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423,005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